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이 살인자들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린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바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들어가며

예루살렘과 유다는 수많은 제사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들의 피로 가득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의 제사를 역겨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러한 악행을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고 강력히 선언하십니다.

1.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성읍

다시금 유다를 향한 애가가 울려 퍼집니다. 신실하던 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물론 유다는 표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수한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그 신앙에 걸맞은 정의와 공의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던 성읍에는 이제 살인자들만 남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웃을 억압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며 착취하였습니다.

유다의 상태는 불순물처럼 되어버린 은으로, 물이 섞여 망가져버린 포도주로 묘사됩니다. 말 그대로 유다는 '신실함'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본질이 혼합되어 변질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다의 고관들은 오로지 돈만을 탐하는 도둑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관들은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외면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편을 들어준들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굽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이스라엘의 전능자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보응하시며, 원수들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대적', '내 원수'로 규정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불의를 관망하고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무서운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2. 심판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 분풀이가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그들을 향하여 돌려 대서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 성읍을 다스리는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멈추고 정의를 행하도록 다시 되돌리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다는 다시 공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는 평판을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 끝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시선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 곧 속량을 받을 것입니다. 유다는 불의하였지만,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의를 통해 다시금 속량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키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구원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심판을 통한 구원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쏟아 부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참혹한 심판은 우리를 돌이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회복하여, 이웃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